

『공공부문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 '26년 상반기 393.8조원 집행(전년대비+3.5조원)』

- AI 대전환, 신산업 혁신 등 초혁신경제와
소상공인·저소득층 등 민생지원을 위해 선별된
중점관리사업(34.5조원)은 상반기 70.0%(24.1조원) 집행 -

- 임기근 직무대행,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
- 금년 상반기 집행률 목표는 경제상황 등 고려하여 60% 수준으로 설정
- 월 1회 이상 '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'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 및 소통강화

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.13일(화) 13: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여 2026년 신속집행 추진 계획,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: 교육부, 행안부, 산업부, 기후부, 국토부, 중기부 등

임 직무대행은 새해 첫 재정집행 점검회의(1.2일) 이후 10일만에 2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“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,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한다.”고 강조했다.

이번 회의에서는 재정·공공기관·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상반기에 총 393.8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. 이는 전년대비 3.5조원 확대된 규모로, 구체적으로 재정 354.5조원, 공공기관 투자 37.1조원, 민간투자 2.2조원 등이 포함된다. 집행률 목표는 '26년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여 60% 수준으로 설정하였다.

<참고> 공공부문 신속집행 계획

(단위: 조원, %)

구 분	'25년			'26년			전년 대비 증가분 (D-B)
	연간계획 (A)	상반기 계획 (B)	집행률 (B/A)	연간계획* (C)	상반기 계획 (D)	집행률 (D/C)	
합 계	622.3	390.3	62.7	654.8	393.8	60.1	3.5
재 정	551.1	349.9	63.5	580.4	354.5	61.1	4.6
중 앙	241.1	161.1	66.8	263.9	166.2	63.0	5.1
지 방	283.5	171.5	60.5	290.7	171.5	59.0	0.0
지방교육	26.6	17.3	65.0	25.8	16.8	65.0	△0.5
공공기관	66.0	37.6	57.0	70.0	37.1	53.0	△0.5
민간투자	5.2	2.8	53.8	4.4	2.2	50.0	△0.6

※ 전년도 이월액 규모 등 반영한 최종 규모는 2월 중 확정

아울러, AI·신산업 혁신, 에너지 전환,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·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.5조원을 ‘중점관리 대상’*으로 별도 선정하고, 상반기 중 70% 이상(24.1조원) 집행을 추진한다.

* 예: AI컴퓨팅 자원 활용(2.1조원),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(0.3조원), 지역사랑상품권(1.2조원) 등

이러한 신속집행 목표 달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월1회 이상 ‘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’을 도입한다.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고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.

임 직무대행은 “재정 혜택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”임을 밝혔다. 또한, “행안부·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 정부·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선기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신속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재정투자심의관 재정집행과	책임자	과 장	정석철 (044-214-3270)
		담당자	사무관	남기인 (nki1213@korea.kr)
			사무관	정유정 (yur igip7@korea.kr)
			주무관	김유빈 (7ybkim@korea.kr)